

## 마포공단 ‘일·가정양립문화에 앞장

일·가정양립문화 조성으로 1억7천여만원 절감

2017년 09월 12일 (화) 09:16:19

주현태  gun1313@naver.com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은 불필요한 연장근로 개선으로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며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원 사기양양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경영본부장 직속으로 ‘경영개선혁신(TF)’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TF팀은 먼저 현장점점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자체 자가진단을 총 4회 실시한 결과, 특히 주말에 불필요한 연장근로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통해 연 1억7119만2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중익 경영본부장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공단 임직원은 서로 협력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매우 만족하고 안전한 최우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2차 자체 자가진단을 꼼꼼하게 실시해 내달 20일에 통합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후 추가적으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